

S&P, 폴란드 국내채권 등급 낮춰

□ S&P, 폴란드 국내채권 등급 하향조정

-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&P는 지난 7월 31일 폴란드의 국내통화표시 정부채권과 무보증우선채권의 신용등급을 종전 A+등급에서 A등급으로 1단계 낮추었음. S&P는 폴란드의 막대한 재정수지 적자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정부의 채무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등급을 낮추었다고 밝혔음.
- 그러나 이는 시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즐로티貨는 등급하락의 충격으로 달러 및 유로貨에 대해 0.5%나 하락하였음. 특히, 지금까지 EU 가입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폴란드는 신용등급 상승만 경험해 왔으며, 이번에 하락한 국내통화 채권등급도 1996년 4월 첫 등급을 부여받은 이후 처음 하락하는 것임.

□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채권등급 하락

- S&P의 담당자에 의하면, 폴란드 정부는 2003, 2004년 재정수지 목표를 각각 GDP의 5.7%와 5.1%로 설정하였으며, S&P는 민영화 추진 실적 부진 등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01년 40.5%에서 2004년에는 47.5%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* 지난해 집권한 중도우파의 Leszek Miller 정부는 악화된 공기업 매각여건과 국내기업의 해외매각에 대한 거부 정서 등으로 민영화 추진에 소극적이었음.

- 2004년 EU 가입과 그 이후 빠른 시일 내 유로貨로의 화폐통합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는 재정수지와 정부채무 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. 그러나 S&P는 높은 실업문제, EU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, 인프라 투자 등을 고려할 때, 폴란드 정부가 적절하게 재정수지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음.

□ 외화채권 등급은 그대로 유지

- 한편, S&P는 폴란드의 외화표시 장기채권은 종전대로 **BBB+** 등급에 **안정적 전망(stable outlook)**을 유지한다고 밝혔음. S&P에 따르면, 폴란드는 대외유동성이 건실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조정도 충실하게 수행중이며, 수출산업도 보다 다변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.

□ Koldko 재무장관, 유감표명

- 지난 7월 초 임명된 이후 언론과는 엇박자를 보였던 Kolodko 재무장관이 이번 S&P의 등급조정에는 유감을 표명하며 언론과 동일한 반응을 나타냈음. Kolodko는 임명 이후 외신으로 처음으로 파이낸셜타임즈(FT)와의 회견에서 이번 S&P의 조치가 최근 발표된 자신의 경제위기방지 프로그램과는 무관함을 애써 강조했음.
- 그러나 지난 1990년대 중반과 같이 6% 이상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갈망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Kolodko는 계속 언론과 경제전문가들로부터 팽창재정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.
- 이를 의식한 Koldko는 전임자가 세운 GDP의 5.5%라는 2003년도 재정적자 목표는 과중하여 이를 4.9%까지 낮추고, 2005년까지는 재

정적자를 유로통합 목표치인 GDP의 3% 이내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음.

□ 헝가리, 체코도 영향을 받을 듯

- EU 가입의 선두주자인 헝가리와 체코도 이번 폴란드의 신용등급 하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. 두 나라 모두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확대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폴란드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임.
- 또한, 이번 폴란드의 등급하락은 중장기적인 EU 접근에 따른 혜택보다는 단기적인 정치 및 경제불안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.

책임연구원 고재호(☎3779-6663)

E-mail : kohjh@koreaexim.go.kr